

2003년 불교문화계 결산

산사음악회 '활기' 불교미술전 '붓물'



◇강릉사 회백의 '고려불화 재현'에 선보인 수월관음도.

올해는 어느해보다 산사에 음성공양이 많이 울려 퍼진 한해였다. 최근 2-3년간 경제 한파로 주춤했던 산사음악회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북한산 심곡암과 같은 작은 암자에서부터 천안 성불사, 진천 보탑사, 공주 영평사, 양평 사나사, 해남 미항사, 봉화 청량사에 이르기까지 전국에 확인된 곳만도 30여곳이 넘는다.

고즈넉한 산사를 배경으로 바람이 연주하는 풍경 소리와 중생이 연주하는 악기의 선율이 종교를 초월한 관광객과 지역주민들까지 사철로 불러 들였다. 하지만 일부 사찰은 출연료와 무대 설치비 등에 소요되는 고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산사음악회를 열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따라서 소규모 저예산의 실속있는 산사음악회를 기획하는 것도 내년에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겨졌다.

미술전시 또한 붓물처럼 쏟아졌다. 귀일 스님의 기와 그림을 비롯해 한기 넘치는 조각전, 김순자씨 도예전, 강복사씨의 고려불화 재현전, 정비파씨의 국도기행 목판화전과 같은 개인전은 물론 전통문화재 조각전, 전국 국립박물관의 불교관련 기획전시 등 관련단체들의 전시

가 잇따랐다. 장르면에서도 회화, 조각, 선묵화, 판화 등 다양해져 불교미술의 폭이 넓어졌다. 평가 받았다. 또 꼭 불교작품은 아니더라도 일반작가들의 명상과 선(禪) 관련 작품들도 눈에 띄게 늘어난 것도 주목을 끌었다. 이외에도 불교문화산업기획단이 지난 4월 불교미술관에서 개최한 '20세기 한국 불교 근세 고승진영 자수전'은 북한 만수대 장작사가 수작업을 한 것이라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음악과 미술의 기상이 '맑음'이었다면 무용과 연극은 '흐림'으로 평가 된다. 우선 무용계는 열악

한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불교 무용의 명맥을 이어 가고 있는 소재연 동국대 교수의 '연화', 능화 스님의 정가공연, 법현 동국대 교수 스님의 해외 영산재 공연에 만족해야 했다. 연극도 '붓물'을 출간 도록'이 한편 무대에 올려진 것에 그쳤다. 하지만 이 연극은 문화예술진흥원 우수작품 사후 지원의 형태로 선정돼 내년 1월 4일까지 대학로 극장에서 재상연되고 있다.

방송 분야를 살펴보면 공중파 등 일반방송에서 불교관련 프로그램을 유독 접하기 어려웠던 한 해였다. 예년에 비해 공중파의 부처님 오신날 특집 프로그램들의 수도 줄어들었으며, 그 동안 종중 선보였던 불교 소재 다큐멘터리 등도 MBC 창사 특집극 '티베트 대탐사' 등 한 두 편을 제외하고 새롭게 제작되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영화계는 불교와 불교적 세계관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어느해보다 풍성하게 제작됐다. 대표적으로 김기덕 감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과 주경중 감독의 '동승'은 국내보다 국제무대에서 주목을 받으며 각종 국제영화상을 휩쓸었다. 또 '오세암', '원더풀 데이즈' 등 애니메이션도 호평을 받아 문화창작의 소재로서 불교가 가진 가능성은 보여주었다.

김주일 · 한상희 기자



◇올 한해에는 가을산사음악회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사진은 심곡암 산사음악회 모습.

'동승' 등 불교소재 영화 국제무대 '우뚱' 열악한 환경속 연극·무용은 명맥만 유지



◇영화 '동승'의 한 장면. 영화 '동승'의 감독인 김기덕 감독이 초청된 영화 '동승'.

연말전시회 3제

성호스님 연꽃사진전 열려 10여년 짝은 작품들 전시

충남 아산에 2천여평의 연지를 직접 가꾸며 연꽃의 다양한 모습을 카메라 앵글에 10여년 동안 담아온 성호 스님이 그 결과물을 꺼내 놓는다. 12월 26일까지 서울 인사동 한국고미술 전시장에서 열리는 '삼천년의 미소' 연꽃 전시회가 그것이다. 분홍색, 하얀색, 녹색 등 다양한 색깔을 지닌 고고한 연꽃의 자태를 정제된 영상으로 만날 수 있다. (02)730-5601



◇성호스님의 '연꽃'

허위영 '절 그 주변 조각전' 불교의 사유정신 녹아 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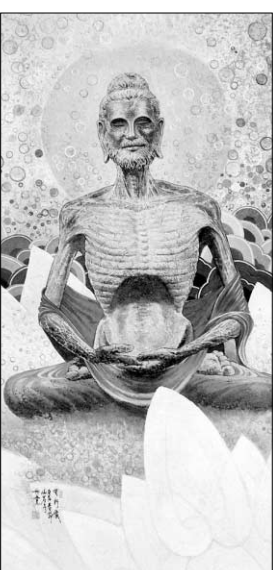
절 주변에는 무엇이 있을까. 스님, 범당, 부처님, 목어, 법구 등 얼핏 생각나는 것만 꼽아도 열손가락으로 모자란다. 이것들을 작가 허위영씨는 한련의 조각들로 빚어 모아 놓았다. 제목은 '절 그 주변'이다. '부처' '생각' '절터' '범종' 등 이번 전시작품들을 꼼꼼히 살펴 보면 전통의 계승과 현대적 해석, 의미와 존재론적 차이를 오가며 해맨 흔적이 역력하다. 단순한 조각을 뛰어 넘어 불교의 사유가 겉으로 배어 나오기 때문이다. 12월 31일까지 부산 마린 갤러리. (051)746-4757



◇테라코타 기법을 사용한 '부처'

'성불도' 등 30여점 묘각스님 선화전

묘각 스님(선암사 대각암)의 선화전이 12월 24일까지 광주 남도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천도화'를 비롯해 '문수동자', '연꽃', '관음보살', '백의관음', '면벽달마' 등 30여점이 선보인다. 작품 대부분이 수묵과 채색을 혼합해 동양회화기 보다는 서양 회화적인 느낌이 강렬하다. 하지만 여백의 미를 살려 선적인 느낌을 놓치지 않으려는 작가의 노력이 곳곳에 역력하다. 이번 작품들중 앙상한 감비뼈를 드러낸 부처의 고행을 그린 '성불도'는 너무도 정교해 마치 사진을 찍어 놓은 것 같다. (06)227-1136



◇묘각스님 작, '성불도'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BTV tvN <ch 32>
06:30 새로운 인생	24일 09:10 목연 스님의 시와 사랑
08:55 우리들의 찬불가	25일 15:25 건강하게 삼시다
11:10 행복스튜디오	26일 19:30 허재홍의 영화산책
12:20 백팔가요	27일 08:30 성운대사 불경강좌
14:05 김용우의 국악발전	28일 17:25 자비의 천수천안
19:00 저녁종합뉴스	29일 09:20 외국인 스님의 영어법문
20:05 다시 듣고 싶은 노래	30일 09:10 불교TV 매디칼

아이리이트

- 불교방송
 - ▷ 백팔가요(12월 26일 12:20-14:00)-가수 이정열 씨의 진행으로 최신 가요에서 흘러간 가요까지 우리 삶에 배어있는 좋은 음악을 들어보는 시간. 금요일에는 가수 송병희 씨가 최신 가요의 흐름을 정리하는 '금요일에 만나요' 코너가 방송된다.
- 불교갤러리전
 - ▷ 자비의 천수천안(12월 28일 17:25)-태어난지 6개월부터 아프기 시작한 양 군은 현재 청력과 시력만 온전하고 제대로 움직일 수 없다. 수술비 마련이 시급하지만 여의치 못한 사정으로 어려움에 놓인 양 군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녹음테이프 공부하는 太極四柱가 나왔다 (사주배우기가 너무 쉬워졌다)

중국 命理學을 완전 압도하는 새로운 太極四柱가 나왔다. 太極四柱는 이론이 간단명료해서 누구나 쉽게 배우고 속성으로 완성하며 자신있게 개업할 수 있다.

中國四柱인 命理學은 10년을 공부해도 끝이없고 올바른 판단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太極四柱는 배우기가 매우 쉽고 자상하며 간단명료해서 구체적이고 논리가 정연함으로서 차분하고 능소 능대한 강의는 들을수록 감명과 실감이 생생하다.

누구나 이해하고 터득하도록 실례를 들어 흥미 진진하게 설명 하므로서 질문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녹음테이프를 하루 한시간씩 독학으로 2개월이면 완성하고 인간간사를 정확하게 판단한다.

20여년간 강의하고 연구개발한 太極四柱는 오판과 실수가 없다. 中國命理學과는 하늘과 땅 차이이다.

(안내서 무료 배포)

- 주문방법: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고 전화하면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 테이프(14개)와 교재 代金 45만원
- ▶ 농협: 100080-56-022361 (손선영)
- ※ 스님 및 포교사 특별할인 (30만원)

學術團體 韓國陰陽學會中央會
(053) 324-2468 / 326-4585

釜山支部: (055) 384-2303 大邱支部: (053) 641-2334
龜尾支部: (054) 465-2642 慶南支部: 016-274-3170
慶北支部: (054) 553-5145

국제 수준의 타로(TAROT) 카드 교육 실시

1. 타로카드 교육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타로(TAROT)카드를 국제 수준에 맞게 배우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양에 주역이 있는 것 처럼 서양에는 타로카드가 있어 왔습니다. 타로카드의 일상생활에서 이런 문제들을 점치는데 쓰입니다.

1. 연애와 결혼 2. 인간관계 3. 금전문제 4. 사업문제 5. 일 자리 찾기
이밖에도 인생의 운과 과정에 선택, 결단, 결정을 내리는 데도 쓰이며 연구 개발, 사업기획, 정책입안, 문제해결의 길을 찾는 데도 쓰입니다. 그리고 그저 카드를 보면서 상상을 하거나 해도 정신수련, 마음수련, 정신위생, 무뇌훈련, 상상력훈련에 도움이 되는 도구입니다. 우리 국제타로학원에서는 지난 1년여에 걸친 준비를 완료하고 국제수준에 맞는 타로카드의 단체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재로 쓰이는 타로카드도 오리진날 마르세이유 타로카드를 현대에 복원한 키오왕관 마르세이유 타로카드를 한국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키오왕관 마르세이유 타로카드 1세트 35,000원
- 교육일시
 - 1차 제1단계: 03년 11월 22일(토) ~ 23일(일) 선착순 24명
 - 제1 단계: 03년 11월 29일(토) ~ 30일(일)
 - 제1 단계: 03년 12월 6일(토) ~ 7일(일)
 - 제2 단계: 03년 12월 27일(토) ~ 28일(일)
 - 제3 단계: 04년 1월 24일(토) ~ 25일(일)
 - 2차 제1단계: 04년 1월 3일(토) ~ 4일(일)
 - 제2 단계: 04년 1월 31일(토) ~ 2월 1일(일)
 - 제3 단계: 04년 2월 21일(토) ~ 22일(일)
- 참가비: 각단계 12만원 균일 시간: 오전 10시 ~ 오후 5시

2. 레이키(Reiki)교육
레이키에서는 10시간이면 누구나 氣에 오르기 어렵지 않습니다. 레이키에는 어떤 면에서는 특유의 비법이 있기 때문에 바로 氣에 오르기 원력치로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은 우리의 운명을 단적으로 만들어 드리는 일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 오스이 레이키: 교육기간 2-3일 전수비 50만원
- 카리나 레이키: 교육기간 1일 전수비 30만원

국제타로학원(한글도메인)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박희준)
인터넷 www.Reiki.co.kr

- ◇ 전화: 02)720-5682, 720-5719 핸드폰 019-392-2557
- ◇ 주소: 서울시 중로구 신문로 2가 89-27 피어선빌딩809호

간(肝)의 건강에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도중 중담과 비갈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참다슬기 농축액

참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인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인다. 농축액은 60도 단위로 포장된다.

참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참다슬기 물에 넣고 97마리를 달인 뒤 원기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원료가 다 터질때까지 꼬박 8-9일이 걸립니다. 한달 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055) 963-9583 · 상담문의: (055) 355-5626
산마를 토중 (민속농원)

영험량

픽미승 예언

불보살님 가피력

- 참회하는 마음
- 용서하는 마음

영험사례

- 15년전 죽은 삼촌 점신
- 26년전 죽은 어머니 점신
- 20년전 낙태혼 점신
- 18년전 죽은 언니 점신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해원사 조하루, 18일 법회

031-336-3734 · 3735